

참선수행-백일기도... '참나' 꼭 찾으리

재가불자도 '동안거'

전국 시민선방 10일 일제히 결제

태산을 움직이겠다는 용기. 이 길이 아니고서는 결단코 삶을 이어갈 수 없다는 간절함. 빈 손, 빈 마음으로 화두 하나 달랑 들고 들어선 선방엔 나도 없고 너도 없다. 오직 '찾아내야 할 나'만이 있을 뿐.

10일 동안거 결제와 함께 전국各地的 시민선방과 사찰들이 재가불자를 위한 동안거 및 참선수행을 마련하고 있다. 또 재가불자들의 겨울철 수행을 돕기 위해 선 수련회 등의 독특한 프로그램이 사찰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다. <표 참조>

겨울수련회는 참선이나 교리, 수행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여름 수련회와는 달리 말 그대로 '선수행'에 몰두한다는 것이 특징. 단순히 세간사를 벗어나 '선'을 맞보는 것이 아니라 아집을 떨고 내고 철저히 자신을 단련하기 위

한 수행과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특히 동안거나 참선수행 참여자 대부분이 수행 자체를 기쁘고 즐겁게 받아들이는 '근기' 있는 사람들이라 수행의 집중력과 효과도 높다. 그래서인지 해가 거듭될수록 겨울 수행의 깊이를 맛보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결제기간 중에도 대부분의 선방과 사찰에서는 참선수행을 원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인다.

전통 재가선방인 통도사 보살선원, 해인사 원당암 달마선원, 부산 해운정사 금모선원은 10일부터 내년 2월7일까지 스님들의 동안거와 마찬가지로 재가불자 동안거를 실시한다. 3개월간 속식을 이곳에서 해결하며 참선수행을 해야하는 엄격한 과정이다. 다만 금모선원은 출퇴근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선학원 중앙선원과 도선사 무차

선원, 봉은사 봉은선원, 대구 보현사 시민선원, 부산 범어사 포교원 여여선원, 한국불교선학연구원 무불선원, 수선회 등도 이 기간동안 안거수행에 들어간다. 이들 시민선방들은 모두 참가자들이 필요한 시간에 와서 선수행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이중 중앙선원과 수선회는 원하는 사람에 한해 해제 때까지 기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무불선원은 오전시간에 스님의 지도아래 참선체조와 호흡, 참선실수, 화두공부 등의 강의를 진행한다.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불광사, 부산불교교육원도 참선수행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은 동안거 기간중 매일 저녁 7시부터 두 시간 동안, 부산불교교육원은 11월30일부터 6개월 과정으로 매주 목요일 참선기초이론과 생활참선법 등의 강의를 함께 참선실수를 한다. 불광사는 지난 5일 '겨울철 50일 기도'를 일제히 12월17일 해제한다.

◇사찰·단체 재가불자 겨울수행

사찰명	기간	연락처
무불선원	동안거 11.10~2001.2.7	02-541-0002
수선회	동안거 11.10~2001.2.7	02-732-5980
부산 해운정사 금모선원	동안거 11.10~2001.2.7	051-746-2256
해인사 원당암 달마선원	동안거 11.10~2001.2.7	055-932-7308
통도사 보살선원	동안거 11.10~2001.2.7	055-383-8334
도선사 무차선원	동안거 11.10~2001.2.7	02-993-3162
선학원 중앙선원	동안거 11.10~2001.2.7	02-732-3327
봉은사 봉은선원	참선수행 11.10~2001.2.7	02-516-5652
대구 보현사 시민선원	참선수행 11.10~2001.2.7	053-254-6966
부산 여여선원	참선수행 11.10~2001.2.7	051-853-5486
안양 한마음선원	참선수행 11.10~2001.2.7	031-470-3100
부산불교교육원	참선수행 11.30~2001.5.30	051-466-4080
불광사	참선수행 11.5~12.17	02-413-6060
통도사	화엄수행 11.25~12.25	055-362-7182
백양사	선수련회 12.17~2001.2.4	061-392-7502
구례 연기암	선수련회 12.4~2001.2.20	061-782-0568
직지사	백일기도 10.27~2001.2.7	054-436-6174
법연사	백일기도 11.10~2001.2.16	02-733-5322

백양사는 서용스님의 법문과 화두강좌, 선종사 강의 참선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12월17일부터 내년 2월4일까지 4박5일간 일정으로 네 차례에 걸쳐 '참사람 수행결사'를 준비하며, 구례 연기암은 12월4일부터 내년 2월20일까지 4박5일간 일정으로 8차에 걸쳐 매일 8시간씩

참선하는 '선 수련법회'를 연다. 또 통도사는 26일부터 12월25일까지 참선과 <화엄경>을 공부하는 '화엄산림'을 봉행하며, 이밖에 조계사, 직지사, 법연사 등의 사찰은 '백일기도' 법회를 연다.
한영우·김두식 기자 (mwhan@buddhapia.com)

“매장문화재 보호 목적 개인 재산권 제한 가능”

대법원 '경주 선도산 일대 개발 불허' 판결

매장 문화재 보존을 위해서는 개발을 제한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용우)는 6일 학교법인 계명기독교학원이 문화재청장을 상대로 낸 유적발굴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해 개인이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다”며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관련 학계는 이번 판결을 한국 문화재 정책에 큰 획을 긋는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하고 이를 계기로 문화유산보존운동이 진일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화재청 역시 이번 판결로 문화재보존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펼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의뢰시설 공사를 위해 경주 선도산 일대를 개발할 경우 이 지역에 널린 신라시대 고분 등 문화유적이

파괴 및 멸실 될 수 있다”며 “원고가 공사를 하지 못해 입을 경제적 손실에 비해 유적 보존으로 달성하는 이익이 결코 적지 않다”고 밝혔다.

계명기독교학원은 지난 97년 4월 선도산 일대에서 종합병원 건립을 위한 토목공사를 하던 중 신라시대 고분 5기가 발견되자 공사진행에 위해 문화재청에 유적발굴허가신청을 냈으나 불허되자 소송을 냈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개발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는 다른 유적지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백제 하남위례성으로 확정된 서울 송파구 풍납동 풍납토성을 비롯한 구수려를 갖게 된다. 지난해 건설공사 진행하다 발굴된 유적은 245건인데 반해, 이중 단 1건만이 보존됐을 뿐이다.
오종욱 기자

“장경사 송전선로 백지화”

12개 교계단체 요구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불교바르세우기재7연대, 불교환경교육원 등 12개 불교단체는 6일 용인 장경사 인근 송전선로 건설 계획의 백지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장경사와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송전선로 계획에 대해 산자부와 환경부의 책임있는 사과와 백지화를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고려할 창건된 장경사와 그 일대는 최초의 금속활자본 직지삼체요정의 초안이 완성된 쌍운암의 사지가 발견된 문화유적지이며, 장경사 뒷산인 쌍령산은 집중호우시 산사태의 전례(91년 주민 1인 사망)이 있어 자연환경의 보존이 더욱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는 산이”이라며,

“높이 90m가 넘는 송전탑은 소중한 문화유산의 전승의 기회를 박탈하고 자연경관의 훼손은 물론 인명피해마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불교단체들은 “산자부와 환경부는 송전선로 노선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주민과 시민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장관 퇴진운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어 환경·시민단체 관계자와 주민 등 200여명은 8일 한전 본사 앞에서 ‘장경사 및 쌍지리 인근 송전탑 설치 반대’ 집회를 개최하고 백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한편 한전측은 항의방문한 비상대책위와의 면담에서 정식 협상단을 구성하고 조만간 주민들과의 대화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재경 기자



조계사에 온 수녀들

천주교 한국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소속 수녀 40명은 서울 조계사 경내에서 새만금 갯벌 살리기 농성을 벌이고 있는 시민단체 회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8일 밤 농성현장을 방문, 성가를 불렀다. 한편 지리산살리기대법불교연대와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등 200여개 환경·사회·종교단체들은 10월 16일 서울 조계사에서 ‘새만금농성 선포식’을 갖고 새만금 간척사업 전면 중단을 촉구하며 26일간의 농성에 들어갔다. 이 농성은 정부가 새만금 민·관 공동조사단의 최종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불교계 등 국민들의 여론을 모아내기 위한 것이었다.
(사진제공 중앙일보)

한편 이날 매매한 청주 이모 씨의 집에서는 20여 년 전 입실 북상암에서 도난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탕화를 비롯해 목조사자상, 코끼리상, 고서 등이 다수 발견됐다.
오종욱 기자

입실 신흥사 나한상 절도범 ‘검거’

지난 9월 말 전북 입실 신흥사 나한상(사진)을 훔친 절도범이 지방 경찰관의 끈질긴 수사 끝에 사건발생 20여 일만인 10월18일 검거됐다.

99년 6월 전북신흥사부도 도난범을 검거해 중무원장 표창을 받았던 입실경찰서 배영근 경사는 20여 일만에 걸쳐 사찰을 드나드는 차적 등을 조사한

끝에 지난달 18일 범인 오모, 이모 씨를 검거해 범행 일체를 자백받고 23일 검찰에 이송됐다.

한편 이를 매매한 청주 이모 씨의 집에서는 20여 년 전 입실 북상암에서 도난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탕화를 비롯해 목조사자상, 코끼리상, 고서 등이 다수 발견됐다.
오종욱 기자



불교인권위원회(공통위원장 진관·지원·한상범)는 창립 10주년을 맞아 고승 선서화전, 인권상 시상, 민족민주열사 천도법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갖는다.

불교인권위는 5일 부산 문수사에서 모임을 갖고 2000년도 인권상 수상자에 라창순 제10차 범민족대회 고문, 이성우 민주주의민족통일부선연합 의장을 선정하고 인권법담당 김기석(56·주택보 중기금 상임감사) 씨를 5대회장으로 선출하는 등 본격적인 조직정비에 나섰다.

신임 김기석 회장은 “모든 불교단체를 초종파적이고 범 불교적으로 재결집해 훌륭한 신형단체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불총은 회원 상호간 교류확대와 기관지 발간 및 중앙회관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두식 기자

불교단체총연합회 회장 김기석씨 선출

불교인권위 10주년 기념 인권상 시상·선서화전

전갈러리에서 갖기로 했다. 이번 전시회에는 석주 화엄 석경 법흥 지선 일장 중광 진관 스님의 작품들이 전시된다. 불교인권위는 또 창립10주년 기념제로 12월 19일 불교인권상 시상 및 진관스님 및 지원스님 시집 출판기념회를 갖고, 20일 민족민주열사 가족초청 사찰순례(범어사 통도사 운문사), 21일 민주열사들을 위한 동지 천도법회(문수사) 및 영호 남북합을 위한 김치축제를 연다. (02)734-6401 김재경 기자

불교단체총연합회 회장 김기석씨 선출

한국불교단체총연합회는 4일 임시총회를 열고 김기석(56·주택보 중기금 상임감사) 씨를 5대회장으로 선출하는 등 본격적인 조직정비에 나섰다.

신임 김기석 회장은 “모든 불교단체를 초종파적이고 범 불교적으로 재결집해 훌륭한 신형단체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불총은 회원 상호간 교류확대와 기관지 발간 및 중앙회관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두식 기자

불교단체총연합회 회장 김기석씨 선출

불교단체총연합회 회장 김기석씨 선출

불교단체총연합회 회장 김기석씨 선출

부처님의 가르침과 큰 스님들의 말씀을 21세기 첨단영상공학 기법으로 새롭게 만나보십시오. 9일간의 자기 성찰 여행이 당신 안에 있는 또 다른 당신을 일깨워줄 것입니다.

한빛 아보타 센터

아보타 마스터/동시통역사 손민국·아보타 마스터/임상심리 전문가 김정민

인연을 주시는 분께는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서울시 노원구 상계 1동 1277

전화 : (02) 3392-0464 / 핸드폰 : (016) 271-2096

(주)스포츠를 사랑하는 사람들

노벨상의 영광을 월드컵으로 꽃 피우자!

“스포츠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동반자를 찾습니다.

축! 김흥국의 스포츠랜드 파필리오 papilio 오픈!

papilio

사무실 이전 행사안내

- 본사이전주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7-8 동성빌딩 2층 (KBS본관 정문 앞)
- 이전행사일자: 2000년 11월 18일 (토) 정오
- 행사장소: (주)스포츠를 사랑하는 사람들 본사

http://2002asia.co.kr 상담전화 / 02)761-2002